

김민석 국무총리, 「다렌 탕」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접견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일(목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「다렌 탕 (Daren TANG)」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 사무총장을 만났다.

※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 :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)는 국제연합 산하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기구로, 현재 194개국이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1979년 가입함

□ 김 총리는 다렌 탕 사무총장의 방한을 환영하고, 새롭게 출범한 지식재산처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협력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.

○ 또한 “그간 우리나라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키우는 데 지원해왔고, 앞으로도 지식재산 행정시스템, 인공지능 등 한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국제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하겠다”고 밝혔다.

○ 아울러, 최근 K-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으므로, 이에 대해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다렌 탕 사무총장은 한국의 지식재산처 출범을 축하하면서, 그동안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,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윤미란 (044-200-2248)
		담당자	사무관	안성재 (044-200-2226)